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 속 주어 출몰 현상에 대한 응집성(cohesion) 및 응결성(coherence)의 적용 방안 고찰*

윤유정**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응결장치 분류
 - 1) 지시(Reference)
 - 2) 대체(Substitution)
 - 3) 생략(Ellipsis)
 - 4) 접속(Conjunction)
 - 5) 어휘응결(Lexical Coherence)
3. 주어 출몰과 관련된 응결장치 사용 경향
 - 1) 의문설명문 속 주어 출몰
 - 2) 서신문 속 주어 출몰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문장에서 주어는 서술어와 함께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성분 중 하나로, 주어를 잘못 사용하면 문법적으로 비문을 생성하거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¹⁾ 그러나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539).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1) 이동혁·유혜원(2009:191-192) 참조.

에는 주어의 출현이나 생략으로 인한 오류문이 종종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²⁾

- (1) a. *按父母的看法, 子女們不聽話、難以管教。但, 子女們都有自己的想法。無論這些想法是對的還是錯的, {CJ-zhuy父母} 都應該努力了解這些新的想法。
 b. *我的父親今年55歲。我在北京留學當中我的父親來過一次, 我陪他游覽了北京的名勝古迹及幾個城市。那時候, 我才發現父親不是我過去認識的那樣保守、自私、嚴格, 而是{CJ+zhuy父親}很有幽默感而且容易理解別人。

위 예(1a)는 ‘無論…, 都…’ 복문에서 두 번째 절 술어 ‘都應該努力了解’의 문법 주어 ‘父母’는 앞 절의 주어 ‘這些想法’와 다르므로 이를 첨가해야 하나 누락시켜 생긴 오류문이다. 예(1b)는 술어 ‘發現’의 목적절로 쓰인 ‘不是…, 是…’ 복문에서 두 번째 절 주어 ‘父親’이 앞 절에 이미 출현해 있으므로 이를 첨가할 필요가 없는 데도 첨가하여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에는 주어의 출현 및 생략과 관련된 오류문이 자주 출현한다. 이에 본고는 텍스트언어학의 ‘응집성(cohesion)’ 및 ‘응결성(coherence)’에 근거하고 응결장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에 나타난 주어의 출현과 생략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어 작문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이석규(2003:53)에 의하면 텍스트란 간략하게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communicative) 발화체(occurrences)’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³⁾에 의하면 발화체는 7가지의 텍스트성(textuality) 즉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응집성(cohesion), 응결성(coherence)을 갖추고 있는데,⁴⁾ 그 중 ‘응집성’과 ‘응결성’이

2) 예문은 BCC語料庫(<http://bcc.blcu.edu.cn/>)에서 인용.

3) Beaugrande & Dressler(1981), 김태욱·이현호(1991) 참조.

4) 이석규(2003:53-57)에서 재인용. ‘cohesion’과 ‘coherence’에 대한 용어 통일이 아직 이루

텍스트다음의 가장 명시적인 기준이다.

‘응집성(cohesion)’이란 텍스트를 이루는 여러 개념과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발화체 내부에서 서로 조화되고 의존하는 가능성 또는 적합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응집성은 텍스트 안에서의 의의의 연속성(continuity of senses)이라고 할 수 있다. ‘응결성(coherence)’이란 표층결속성이라고도 하며, 텍스트의 구성성분과 텍스트 표층과의 관계를 뜻한다. 이는 문법적 의존관계(grammatical dependencies) 또는 통사규칙을 바탕으로 한다.⁵⁾ 따라서 ‘응집성’은 텍스트 구성 성분들 사이의 논리·의미적인 관계자질이고, ‘응결성’은 문법적인 자질이다.⁶⁾ 좋은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응집성이 높아 문장 결속력이 좋아야 하며,⁷⁾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응결장치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2장에서 응결장치에 대해 살펴본 후,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에 보이는 주어의 출현 및 생략과 관련된 응결장치의 사용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2. 응결장치 분류

응결장치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고는 가장 일반적으로 인

어지지 않아 학자에 따라 ‘cohesion’을 ‘결속구조, 결속, 응결성, 응집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coherence’를 ‘결속성, 응집성, 통일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본고는 정희모 외(2015:272)가 ‘cohesion’을 ‘응집성’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coherence’는 ‘응결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5) 이석규(2003:85, 89) 참조.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2009:23) 참조.

7) 정희모 외(2015:272) 참조. 이관규(2005:509)는 “바른 문장이란 크게 문법에 맞는 문장, 명확한 문장,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문장을 일컫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법에 맞는 문장’이란 ‘문법성(grammaticalness)’을 갖추고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고, ‘명확한 문장,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문장’이란 작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기본적으로 한 가지로 해석되는 문장을 ‘명확한 문장’이라고 했다. 이는 문법성이 떨어지더라도 의사소통 가능성이 높다면 바른 문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으로 독자의 ‘용인성(acceptability)’과도 관련된다.(이동혁·유혜원(2009:194-195) 참조.)

용되고 있는 Halliday&Hasan(1976)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중국학자 黃國文(1988), 胡壯麟(1994), 張德祿·劉汝山(2003)의 분류에도 공통으로 출현하는⁸⁾ 5가지 응결장치 즉 '지시, 대체, 생략, 접속, 어휘응결'로 분류한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응결장치에 대해 중국어 예를 인용하여 살펴보자.

1) 지시(Reference)

주희민(2013:347)에 의하면 텍스트에서 앞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언급한 다음 뒤에서 이를 다시 언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시 형식을 취한다. 가장 중요한 지시 방식으로는 '인칭 지시(人稱指稱)'와 '지시 지시(指示指稱)'가 있다.⁹⁾ '인칭 지시'란 인칭 체계를 이용하여 지칭대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중국어에서는 각종 인칭대명사와 '人家, 自己' 등이 인칭 체계에 속한다. 인칭 지시가 적용된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¹⁰⁾

- (2) a. 柏的太太問我怎麼不多玩幾天? 我回他等你到安慶去時我再到都督府內去多住幾天玩玩, 這回住在女師範學校內不大好玩。他高興極了說楊先生! 我若去時, 你一定要再和我一同去, 到各處玩啊!(柏부인이 나에게 왜 며칠 더 놀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柏부인이 安慶에 가고 나면 다시 도둑부로 가서 며칠 더 머무르며 놀 것이며, 이번에 여자사범대학교에서 지낸 것은

8) Halliday & Hasan(1976)은 응결장치를 '지시, 대체, 생략, 접속, 어휘응결'의 5가지로 분류했다. 黃國文(1988)은 '타동성, 지칭, 구조응결(생략, 대체), 논리접속, 주제-평언, 어음 체계, 어휘'로 분류했다. 胡壯麟(1994)은 어법 연결장치, 어휘 연결장치, 논리 연결장치로 층위를 구분한 후, 어법 연결장치는 '시간연결성분, 지점연결성분, 조응, 대체, 생략, 시제 및 상 형식, 대비구조'로 분류하고, 어휘 연결장치는 '동형반복, 동의어(유의어), 상하위어, 개괄어 반복'으로 분류하며, 논리 연결장치는 '접속사, 부사, 구, 절'로 분류했다. 張德祿·劉汝山(2003)은 먼저 명시적 응결과 잠재적 응결로 구분한 후, 명시적 응결은 다시 '어법, 어휘, 음계' 층위로 분류하고, 잠재적 응결은 '상황성 생략, 배경성 생략'으로 분류했다. 어법은 다시 구조성 응결(타동성구조, 어기구조, 정보구조, 주제구조, 평형구조)과 비구조성 응결(지칭, 생략, 대체, 접속)로 구분했다. 어휘 응결은 '중복, 배합'으로 분류했다.

9) 胡壯麟(1994:53) 참조. 胡壯麟은 '人稱指稱', '指示指稱'이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指稱'은 본고의 '지시'에 해당하므로 각각 '인칭지시', '지시지시'라고 번역하여 사용한다.

10) 예문은 胡壯麟(1994:47-48, 54)에서 재인용.

그다지 재미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柏부인)는 기뻐하며 楊 선생을 말했다. 내가 만약 간다면 당신(柏부인)이 꼭 다시 나와 함께 각지로 놀러 다닐 것이라고 했다.)

- b. 你, 你真是胡說, 祝先生是那樣的人嗎?! 人家從前在北京讀過大學堂, 在上海當過大經理, 甚麼世面沒有見過! ……(당신, 당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요. 祝 선생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祝 선생)는 예전에 북경에서 대학당을 다녔고, 상해에서 사장을 한 적이 있는데 세상물정을 모르겠어요!……)

위 예(2a)에서 밑줄 친 인칭대명사 ‘他, 你’가 지시하는 것은 앞에 언급된 ‘柏的太太’이다. 예(2b)에서 ‘人家’는 앞에 언급된 ‘祝先生’을 지시한다.

‘지시 지시(指示指稱)’란 시간과 공간상의 원근에 따라 지시대명사를 이용하여 지칭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어에서는 ‘這/那, 這時/那時, 這裏/那裏’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¹⁾

- (3) a. 黃奮, 你記得十六年五月我們在京漢線上作戰的情形嗎? 那時, 我們四軍十一軍死傷了兩萬多。(黃奮, 너 16년 5월 경한선에서 있었던 전투의 상황을 기억하니? 그때, 우리 4군 11군 2만여 명이 사상했지.)
- b. 你這一身衣服實在看了叫人笑。這還是十年前的裝束。(너 이 옷은 정말 웃긴다. 이것은 10년 전 스타일이야.)

위 예(3a)에서 ‘那時’는 앞에 출현한 ‘十六年五月’을 지시하고, 예(3b)에서 ‘這’는 앞에 출현한 ‘你這一身衣服’를 지시한다.

2) 대체(Substitution)

주희민(2013:351-352)에 의하면, 대체란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뒷부분에서 다시 제기할 때 논술상의 편의를 위해서 중복된 내용을 대체 형식으로 취하는 것을 말한다. 胡壯麟(1994:70-75)은 대체를 다시 명사 대체, 동사 대체, 절(小句)

11) 胡壯麟(1994:56-57) 참조.

대체로 하위분류했다. 중국어에서 명사 대체로 쓰이는 것은 ‘的’, ‘者’ 등이고, 동사 대체는 ‘這麼着’나 대동사 ‘來’를 이용하여 앞부분에 언급된 동사(구)를 대체하는 것이며, 질 대체는 주로 ‘這樣/那樣, 這麼/那麼’를 이용하고 때때로 ‘然’을 이용하여 앞에 언급된 질을 대체하는 것이다.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²⁾

- (4) a. 瞧那晚霞。我沒見過比這更紅的了。只要看晚霞就可以知道天氣了。(저 노을을 좀 봐. 나는 이것보다 더 빨간 것을 본 적이 없어. 노을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어.)
 b. 香菱晴雯寶釵三人皆與他同庚, 黛玉與他同辰, 只無同姓者。(香菱, 晴雯, 寶釵 세 명 모두 그와 동갑이고, 黛玉은 그와 시도 같으나, 단지 성이 같은 사람이 없다.)
- (5) a. 黛玉……便說道: “你既這麼說, 爲甚麼我去了你不叫丫頭開門呢?”(黛玉이 “네가 그렇게 말하면 왜 내가 가서 계집아이를 불러 문 열라고 하지 않았겠어?”라고 말했다.)
 寶玉詫異道: “這話從哪裏說起? 我要是這麼着, 立刻就死了。”(寶玉이 놀라서 “이 말을 어디서부터 말하지? 내가 이렇게 했다면 바로 죽었을 거야”라고 말했다.)
 b. 你畫的不像, 等我來。(네가 그린 것은 비슷하지 않아. 내가 그려볼게.)
- (6) a. 前面一伙小孩子, 也在那裏議論我, 顏色也同趙真翁一樣, 臉色也都鐵青。我想我同小孩子有甚麼仇, 他也這樣!(앞에 한 무리의 아이들도 거기에서 나에게 대해 품평하며, 얼굴도趙영감과 똑같고 얼굴색도 검푸르다고 했다. 나는 내가 어린이와 무슨 원한이 있어 그들도 이러는가 하고 생각했다.)
 b. 那是政府太對不住我們有田產的人了。(그것은 정부가 우리와 같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할 일이다.) 也不僅然。(꼭 그렇지는 않다.)

위 예(4a)에서 ‘紅的’ 뒤에는 ‘晚霞’가 생략된 것으로, ‘的’자가 앞부분에 출현한 ‘晚霞’를 대체하고 있다. 예(4b)에서 ‘者’는 앞부분에 출현한 ‘人’을 대체하고 있고

12) 예문(4)(5)(6)은 胡壯麟(1994:72-73, 75)에서 재인용

주로 서면어에만 쓰인다. 위 예(5a)에서 밑줄 친 ‘這麼着’는 동사구 ‘不叫丫頭開門’을 대체하고, 예(5b)에서 ‘來’는 동사 ‘畫’를 대체한다. 위 예(6a)에서 ‘這樣’은 앞부분의 “議論我。……臉色也都鐵青。”을 대체하고, 예(6b)에서 ‘然’은 앞부분의 “對不住我們有田產的人”을 대체한다.

3) 생략(Ellipsis)

생략이란 단어나 문자의 일부를 빠뜨리는 것으로, Halliday & Hasan(1976)은 이를 ‘무표지에 의한 대체(substitution by zero)’라고 했다. 이는 ‘생략’이 ‘대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텍스트 내의 어떤 것이 화자나 작가에 의해 생략되어 출현하지는 않지만 청자나 독자의 배경 지식 및 어휘 지식 등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胡壯麟(1994:76-84)은 ‘생략’을 품사에 따라 명사 생략, 동사 생략, 절(小句) 생략으로 하위분류했다.¹³⁾

그러나 본고는 주어의 생략¹⁴⁾에 관해서만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陳偉英

13) 胡壯麟(1994:79-80)은 명사 생략, 동사 생략, 절 생략에 대한 예문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① A: 條件也講定了麼?(조건도 정했니?)
B: ∅講定了。三十萬!(정했어. 30만으로!)
- ② A: 公司裏總經理一職請你代理。(회사 CEO 자리를 당신이 대행해주길 부탁한다.)
B: 那不行! 還是請王和甫∅吧!(그건 안 됩니다! 王和甫에게 부탁하는 게 좋아요!)
- ③ A: 你到廠裏幾年了?(너가 창고로 온지 몇 년이나 됐지?)
B: ∅兩年又十天。(2년하고도 10일 됐어요.)

위 예①은 명사 생략으로, 응답문 B ‘講定了’ 앞에 명사 ‘條件’이 생략되었다. 예②는 동사 생략으로, 응답문 B ‘請王和甫’ 뒤에 동사 ‘代理’가 생략되었다. 예③은 절 생략으로, 응답문 B에는 주어와 술어동사 ‘我到廠裏’가 생략되었다.

14)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맥에 근거하여 주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도록 정보가 분명하고 충분한 경우에 한한다. 만약 정보가 모호하고 불충분함에도 주어를 생략하게 되면 독자와의 의사소통은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과정에서 작자가 문장에서 특정 성분을 생략하는 것은 무언가의 특수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주어를 비롯한 문장성분의 생략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독자로 하여금 동일한 성분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잉여적인 정보 확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이동혁·유혜원(2009:199, 205) 참조.)

(2008:35-38), 金慧婷(2014:64-80)의 주어 생략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생략 방식이나 환경에 근거하여 주어의 생략을 크게 순행 생략(承前省略), 역행 생략(蒙後省略), 도약 생략(從中省略), 대화 생략(對話省), 작자 생략(自述省), 범칭 생략(泛指省)으로 구분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행 생략이란 앞 문장에 어떤 정보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경우 뒷 문장에서는 해당 정보를 나타내는 어구를 생략하는 것을 말하고, ‘역행 생략이란 뒷 문장에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앞 문장에서 해당 정보를 나타내는 어휘를 생략한 것을 말한다.’¹⁵⁾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⁶⁾

(7) 九年以前, **我**剛開始學習漢語的時候, **∅**認識了一位從中國南京來的老師。(9년 전 내가 막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중국 남경에서 온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8) **∅**在巖石上坐煩了, 有時, **道靜**也順着海邊走下去。(바위에 앉아 있기 싫으면 때때로 道靜은 해변을 따라 걷는다.)

15) 方梅(1985), 俞敦雨(1987), 瞿宗德(1997), 華宏儀(2001)(2002) 등은 생략된 주어가 각각 선행 혹은 후행하는 문장이나 절의 어떤 문장성분인가에 근거하여 ‘순행 생략(承前省略)’과 ‘역행 생략(蒙後省略)’ 유형을 하위분류하고 있다. 즉 ‘앞/뒷 절의 빈어, 관형어, 부사어, 겹어, 기타 문장성분’이 주어로 쓰일 때 생략된 것 등으로 하위분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a. 屋裏有人, **∅**在悄悄地談話。(앞 절의 빈어가 주어로 쓰일 때 생략됨)
- b. **她**的體質是弱的, **∅**也不美麗。(앞 절의 관형어가 주어로 쓰일 때 생략됨)
- c. 婆婆對**我**很好, **∅**也不願意離開她。(앞 절의 부사어가 주어로 쓰일 때 생략됨)
- ② a. 隔兩三日**∅**要做幾篇文章我瞧瞧, 看**你們**這些時進益了沒有。
(뒷 절의 목적절 주어가 주어로 쓰일 때 생략됨)
- b. 於是, **∅**喝着, **∅**劃着, **∅**說着, **∅**笑着, 把人世的快樂都放在**他們**的兩顆心裏。
(뒷 절의 관형어가 주어로 쓰일 때 생략됨)
- c. 好嘛, **∅**什麼都可以忍受, 可就是不能叫老人們罵**他**怕老婆。
(뒷 절의 겹어식의 주어가 주어로 쓰일 때 생략됨)

위 예①은 앞 절의 어떤 문장성분이 뒷 절의 주어로 쓰일 때 ‘순행 생략’된 것이고, 예②는 뒷 절의 어떤 문장성분이 앞 절의 주어로 쓰일 때 ‘역행 생략’된 것이다.
16) 예문(7)은 BCC語料庫에서 인용하고, 예문(8)은 瞿宗德(1997:10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위 예(7)은 앞 절의 주어 '我'가 뒷 절의 주어로 쓰일 때 '순행 생략' 된 것이고, 예(8)은 뒷 절의 주어 '道靜'이 앞 절의 주어로 쓰일 때 '역행 생략' 된 것이다.

'도약 생략'이란 세 개 이상의 절이 있는 경우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개 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중간에 있는 절의 주어가 앞뒤 두 절의 주어와 동일할 경우 앞뒤 두 개 절의 주어를 생략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emptyset 雖然作了一輩子買賣, 他可究竟是個山東人, \emptyset 心直氣壯。(비록 한 평생 장사를 했지만 어쨌든 그는 산둥 사람이라 마음이 곧고 기세가 드높다.)

위 예(9)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절의 주어는 가운데 절의 주어 '他'와 동일하므로 앞뒤 두 절의 주어가 모두 생략되었다.

'대화 생략'이란 대화 현장에서 화자 '我'와 청자 '你'를 혼동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생략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0) A: \emptyset 看了沒有?(봤니?)
B: \emptyset 看了, \emptyset 還沒看完。(봤는데 아직 다 보지는 않았어.)

위 예(10)은 A, B 두 사람의 대화문으로, 의문문의 주어는 말하지 않더라도 '你'임을 알 수 있고, 대답문의 주어는 '我'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각 문장의 주어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작자 생략'이란 자신의 일을 서술할 때 '我'는 생략되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처럼 문학작품에서 1인칭대명사가 생략된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⁷⁾

- (11) 這幾天 \emptyset 心裏頗不寧靜。今晚 \emptyset 在院子裏坐着乘涼, \emptyset 忽然想起日日走過的荷塘, 在這滿月的光裏, 總該另有一番樣子吧。月亮漸漸地升高了, 牆外馬路上孩子們歡笑, 已經聽不見了; 妻在屋裏拍着

17) 예문은 BCC語料庫에서 인용.

閨兒，迷迷糊糊地哼着眠歌。我悄悄地披了大衫，帶上門出去。(요 며칠 마음이 편치 않다. 오늘 밤에 정원에 앉아 바람을 쐬니 문득 매일 걸던 연못이 생각났는데, 보름달 아래서는 항상 다른 모양이 생긴다. 달이 점차 떠오르자 담벼락 바깥 길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미 들리지 않는다. 아내는 방에서 딸을 도닥이며 흥얼흥얼 자장가를 부르고 있다. 나는 살그머니 걸옷을 걸치고 문을 나왔다.)

위 예(11)은 1인칭 작자 시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앞의 몇 개 절에서 주어 '我'가 생략되었다.

'범칭 생략'이란 주로 무주어문에서 나타나는데, 즉 동작의 행위자나 어떤 현상의 대상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⁸⁾

(12) 天氣冷了, 該穿棉襖了。(날씨가 추워져서 솜저고리를 입어야 할 때가 되었다.)

위 예(12)에서 뒷 절의 주어는 '솜저고리를 입는' 동작의 행위자인데 이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되었다.

4) 접속(Conjunction)

접속이란 이어지는 문장이나 절이 앞, 뒤의 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관계이다. Halliday & Hasan(1976)은 논리관계에 따라 접속어를 크게 첨가(additive), 전환(adversative), 인과(causal), 시간(temporal)으로 구분했다.¹⁹⁾

'첨가'란 문장을 다 말하거나 쓴 후 다시 새로운 정보를 보충하는 것을 말하는데,

18) 예문은 陳偉英(2008:38)에서 재인용.

19) 黃國文(1988:128) 참조. 접속과 관련된 예문은 모두 胡壯麟(1994:96-106)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주로 부사 ‘又, 也’나 접속사 ‘還是, 同樣’ 등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秋隼回答, 又微笑。李玉亭也笑了。(秋隼은 대답하면서 또 미소 지었다. 李玉亭도 웃었다.)

위 예(13)과 같이 부사 ‘又, 也’를 사용하여 각각 秋隼과 李玉亭의 표정을 추가로 나타내고 있다.

‘ 전환’이란 접속사로 연결된 것이 예상과 상반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접속사 ‘可是, 反正’ 등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4) 盡管他焦心自訟: “要鎮靜! 即使失敗, 也得鎮靜!” 可是事實上他簡直鎮靜不下來了!(그는 초조해하며 “침착해야 돼! 설사 실패하더라도 침착해야 돼!”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계속 진정하지 못했다.)

‘인과’는 중국어에서 ‘因爲A, 所以B’나 ‘爲的’ 등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 것, ‘如果A, 那麼B’, ‘B, 如果A’나 ‘那麼着’, ‘不然’ 등을 사용하여 가정조건과 결과를 나타낸 것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5) a. 我看不起資產階級的黃金, 因爲資產階級的黃金也看不起我的新詩!(나는 자본계급의 황금을 얕본다. 왜냐하면 자본계급의 황금도 나의 새로운 시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b. 雷鳴也要上前線去了! 這就証明了前線确是吃緊: 不然, 就不會調到他。(雷鳴도 최전선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것은 최전방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위 예(15a)는 ‘因爲’를 써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예(15b)는 ‘不然’을 사용하여 가정조건관계를 나타낸다.

‘시간’이란 어떤 사건이 발전하는 선후 순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두 사건이 동시

에 발생하는 것과 앞 내용을 총괄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6) a. 可是床裏的小孩子却哭得更厲害。**同時**，房外樓梯上腳步聲音響了，帶哭帶嚷的青年婦人奔進房來。(그러나 침대에 있던 아이는 오히려 더 크게 울었다. 동시에 집 밖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젊은 여자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 b. 他的問題很簡單：怎樣把到期的押款延宕過去，并且怎樣能够既不必“忍痛”賣出賤價的絲，又可以使他的絲廠仍舊開工。**總之**，他的問題是如何弄到一批現款。(그의 문제는 간단하다. 만기가 다 된 대출금을 어떻게 하면 연기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너무 싸지 않게 값싼 실크를 팔아치우며 그의 실크 공장을 예전처럼 가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그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현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위 예(16a)는 ‘同時’를 사용하여 앞 사건과 뒷 사건이 동시에 발생함을 나타낸다. 예(16b)는 ‘總之’를 사용하여 앞에 나열한 문제들을 총괄하고 있다.

5) 어휘응결(Lexical Coherence)

어휘응결이란 단어의 반복, 동의, 반의, 상하의미, 상보, 전체-부분 등의 관계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어휘응결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본고는 廖秋忠(1986), 黃國文(1988), 胡壯麟(1994), 徐糾糾(2003)가 분류하고 있는 어휘응결 즉 동형 반복, 부분동형 반복, 동의어(유의어), 상하위어(총칭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동형 반복이다. 동형 반복은 대체어와 피대체어가 동일한 형태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일한 존재가 텍스트에 지속적으로 출현함으로써 강력한 응집을 형성한다.²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²¹⁾

20) 연동숙(2005:34) 참조.
21) 예문은 廖秋忠(1986:89)에서 재인용.

- (17) 這裏還流傳不少王維的故事，其中就有王維慧眼識韓幹一事。據說：韓幹當時在輞川一個酒店當伙計，一天去向王維討酒錢，適逢王維在欣賞一張剛畫完的潑墨山水圖。韓幹不敢打擾王維的濃興，於是就用石塊在院子裏的地上畫起馬來，……(여기는 아직도 王維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王維가 혜안으로 韓幹를 알아보게 된 사건이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韓幹이 당시 輞川에 있는 한 주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는데, 하루는 王維에게 술값을 재촉하러 갔다. 그때 마침 王維는 막 완성한 발묵 산수도를 감상하고 있었다. 韓幹은 감히 王維가 감상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돌로 마당에 말을 그리기 시작했다……)

위 예(17)에서 고유명사 ‘王維’, ‘韓幹’이 동형으로 반복 출현하고 있다. 둘째, 부분동형 반복이다. ‘부분동형 반복’이란 피대체어의 형태를 줄이거나 늘려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²²⁾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²³⁾

- (18) 中國國家男子籃球隊二十八日晚在法國康布雷以九十一比八十四再次戰勝南斯拉夫盧布爾雅那隊，……中國男籃是在參加了法國國際籃球邀請賽之後，應邀到法國其他城市訪問的。中國隊將於五月一日前往波瀾參加另一次國際籃球邀請賽。(중국국가남자농구팀은 28일 저녁 프랑스 캅브레에서 91대84로 유고슬라비아 류블라나 팀을 또 이겼다.……중국남자농구팀은 프랑스 국제 농구 초청대회에 참가한 후 프랑스 기타 도시에도 방문하여 초청경기를 한다. 중국팀은 5월 1일 폴란드로 가 한 차례 국제 농구 초청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위 예(18)에서 대체어 ‘中國男籃’과 ‘中國隊’는 모두 피대체어 ‘中國國家男子籃球隊’의 축약식이다.

셋째, 동의어(유의어)이다. 대체어와 피대체어 사이에 재지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휘를 반복 출현시키거나 대명사로 대체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동의어(유의어) 어

22) 연동숙(2005:36) 참조.
23) 예문은 廖秋忠(1986:89)에서 재인용.

휘응결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²⁴⁾

- (19) A: 也有他很配的, 例如在銅錢銀子上的打算。
 (그는 아주 자격이 있어, 예를 들면 금전상의 계산에서 말야.)
 B: 哦—又是和金錢有關係?(오, 또 돈과 관련 있는 거야?)

위 예(19)에서 대체어 '金錢'은 피대체어 '銅錢銀子'와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어휘이다.

넷째, 상하위어(총칭어)로, 피대체어와 대체어가 상하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총칭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미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상위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²⁵⁾

- (20) A: 我這終身唯一的親愛的, 就是這朵枯萎的白玫瑰和這本書!(제 평생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은 마른 백장미 한 송이와 이 책이에요!)
 B: 吳夫人! 我選中了你! 我想來你也同意! 這朵花, 這本書的歷史, 沒有一刻不在我的心頭!(吳부인! 저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도 동의할 것 같군요! 이 꽃, 이 책의 역사는 제 마음에서 한 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위 예(20)에서 '白玫瑰'는 '花'의 한 부류로, '花'는 상위어이고 '白玫瑰'는 하위어이다.

3. 주어 출몰과 관련된 응결장치 사용 경향

Halliday & Hasan은 텍스트를 분별하는 요소로 응집성을 강조했다. 텍스트는 분명히 통일된 연결성을 가져야 하는데, 형식적 차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

24) 예문은 胡壯麟(1994:118)에서 재인용.

25) 예문은 胡壯麟(1994:122)에서 재인용.

으로 응집성(cohesion)을 꼽았다. 좋은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응집성이 높아 문장 결속력이 좋아야 한다. 응집성은 어휘,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론적 관계를 말하며, 텍스트의 의미적 통일성은 텍스트를 응집하는 구조 속에서 어휘나 구절, 문장을 통해 드러난다. 응결장치는 문장 단위에서 이런 의미적 연결 관계가 이루어지는 요소이다. 응결장치의 사용은 텍스트 질을 판단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²⁶⁾ 이에 본고는 구HSK 고등 시험의 작문답안지²⁷⁾ 중 10급과 11급 성적을 획득한 한국인 응시생의 작문 답안지는 좋은 텍스트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응결장치의 사용 경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인 응시생의 작문 답안지 중 구HSK 10등급을 획득한 것은 307편이고, 11등급을 획득한 것은 19편으로, 10등급 이상 고급 중국어 수준을 가진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답안지는 총 326편이다. 이 중 주어의 첨가로 인한 오류((CJ+zhuy)로 표기)와 생략으로 인한 오류((CJ-zhuy))가 출현한 것은 총 33편이다. 주어의 출몰과 관련된 오류가 나타난 작문 텍스트는 “綠色食品與饑餓”, “我看流行歌曲”, “吸煙對個人健康和公眾利益的影響”, “一封求職信”, “一封寫給父母的信” 등의 주제에 대한 것이었다. 馬明艷(2015:19-21)의 문체 분류에 의하면 앞 세 개 주제는 ‘의론설명류’에 속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서신류에 속한다. ‘의론설명류’는 다시 두 가지로 하위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綠色食品與饑餓”, “我看流行歌曲”, “吸煙對個人健康和公眾利益的影響”은 모두 후자에 속한다. 구HSK 작문 시험의 주제에 근거할 때 서신류는 다시 구직서와 일반 서신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직서는 고정적인 구조형식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내용(구직자의 기본 상황 소개, 구직 직위 및 목적, 구직자 연락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서신문은 형식적으로는 고정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비교적 개방적이다.²⁸⁾

26) 정희모 외(2015:272) 참조.

27)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는 모두 BCC語料庫(<http://bcc.blcu.edu.cn/>)의 HSK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다음에서는 위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작문 텍스트 중 주어의 첨가와 생략으로 인한 오류가 출현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주어 출몰에 있어 응결장치가 사용된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작문 텍스트 속 원번호 ①② 등은 작문 응시생이 구분한 단락을, 괄호 ‘[]’는 내포절을 표시한 것이다.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밑줄+진하게’ 처리했다. {+X}는 생략해야 할 주어를 첨가하여 생긴 비문을 표시하고, {-X}는 첨가해야 할 주어를 누락하여 생긴 비문을 표시한다.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부분은 별도로 음영처리 했다. 다음에서 각 텍스트에 나타난 주어의 출몰과 관련된 응결장치의 사용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1) 의론설명문 속 주어 출몰

의론설명문은 논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논증하는 것으로, 본고가 선정한 이 문체의 작문 주제는 세 가지, “綠色食品與饑餓”, “我看流行歌曲”, “吸煙對個人健康和公衆利益的影響”이다.

(1) “綠色食品與饑餓” 작문 텍스트

① 작문1

“綠色食品”與饑餓

①現代社會的人們對“綠色食品”有很大的關心，~~∅~~是(因為{-人門}意識到了{使用化肥和農藥生產出來的農作物被污染得很嚴重，而且這些農作物不利於健康})。

②我認為{使用化肥和農藥的辦法是不對的}。我們應該爲了“綠色食品”的發展更加努力。

③有人說，如果不使用化肥和農藥的話，農作物的產量會大大降低，而現在世界上還有幾億因缺少糧食而挨餓，“綠色食品”的發展就意味着{挨餓的人們會繼續這樣痛苦地活下去}。

④但是，我想{現在他們挨餓的原因不是在於農作物的產量不夠，而是在於不合理的農作物分配}。我從報紙上看過這樣的一個消息：地球上的農作物產量已經達到了解決全球人民饑餓問題的程度，但這麼多的農作物集中在少數人的倉庫裏。

⑤所以我認為{發展“綠色食品”}是使全球人民變得更健康的一件好事情，而絕對不是不顧饑餓難民的不好的事情。

28) 馬明艷(2015:27-28) 참조.

⑥我看[現在科學的發展前途是很光明的]。我相信,[在不遠的未來,我們的科學肯定會發明既衛生、又產量多的綠色食品]。我希望[盡快嘗到理想的未來“綠色食品”]。

〈작문1〉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된 응결장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現代社會的人們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	(순행)생략 ²⁹⁾	-앞 문장 '現代社會的人們對“綠色食品”有很大的關心' -검표로 분리된 앞 어구가 주어
	{-人們	부분동형반복	-앞 절 주어 '現代社會的人們과 부분동형 -인과 접속(因為) 속 술어 '意識到'의 문법주어
	使用化肥和農藥生產出來的農作物		'意識到'의 목적절 속 '被污染'의 문법주어
	這些農作物	지시지시	-앞 목적절 속 주어 '使用化肥和農藥生產出來的農作物 지시 -첨가 접속(而且) 속 술어 '不利於'의 문법주어
②	我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使用化肥和農藥的辦法	부분동형반복	-①단락 속 관형어 '使用化肥和農藥'과 부분동형 '認為'의 목적절 속 술어 '是'의 문법주어
	我們	상위어	-앞 절 주어 '我'의 상위어 -술어 '努力'의 문법주어
③	有人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農作物的產量	부분동형반복	-①단락 속 주어 '…農作物'과 부분동형 -인과 접속(如果…會) 속 술어 '降低'의 문법주어
	幾億		첨가 접속(還有) 속 '挨餓'의 문법주어
	“綠色食品”的發展		술어 '意味着'의 문법주어
	挨餓的人們	부분동형반복	-①단락 속 주어 '人們的 부분동형 '意味着'의 목적절 속 술어 '活下去'의 문법주어
④	我	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我'와 동형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現在他們挨餓的原因		'想'의 목적절 속 술어 '不是'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절 주어 '我'와 동형 -술어 '看過'의 문법주어
	地球上的農作物產量	부분동형반복	-①단락 속 주어 '農作物'의 부분동형 -술어 '達到了'의 문법주어
	這麼多的農作物	부분동형반복	-앞 절 주어 '地球上的農作物'과 부분동형 -전환 접속(但) 속 술어 '集中在'의 문법주어
⑤	我	동형반복	-④단락 속 주어 '我'와 동형 -인과 접속(所以) 속 술어 '認為'의 문법주어
	發展“綠色食品”	부분동형반복	-③단락 속 주어 “綠色食品”의發展와 부분동형 '認為'의 목적절 속 술어 '是'의 문법주어
⑥	我	동형반복	-앞 단락 속 주어 我와 동형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現在科學的發展前途		'看'의 목적절 속 술어 '很光明'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와 동형 -술어 '相信'의 문법주어
	我們的科學	부분동형반복	-앞 문장 관형어 '現在科學'과 부분동형 '相信'의 목적절 속 술어 '發明'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절 주어 '我'와 동형 -술어 '希望'의 문법주어
	∅	(순행or범칭) 생략	-앞 절 주어 '我' 혹은 범칭주어 '人們' - '希望'의 목적절 속 술어 '實現'의 문법주어

〈작문1〉에서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는 모두 출현하는데, 앞부분에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어구가 주어로 쓰이거나 혹은 선행어가 있는 경우에는 동형반복의 응결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새 단락 첫 문장 이외 문장에서의 주어도 어휘응결 중 동형반복이나 부분동형반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접속사로 연결된 복문 속 앞뒤 절 술어의 주어가 서로 다르거나 혹은 목적절 속 술어의 주어와 서술어의 주어가 서로 다를 경우 새로운 어구를 주어로 출현시켜야 한다.³⁰⁾ 그러나 이를 누락하여 오류가 생기기도 하는데, 즉 ①단락 속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因爲' 속 서술어 '意識到了'의 문법주어는 앞 절에 출현한 '現代社會人們'의 부분동형인 '人們'으로, 이를 주어로 출현시켜야 하나 누락하여 오류가 발생했다. 동일한 주어가 이미 앞 절에 출현했으나 접속사 '因爲'를 사용하여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장 속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를 출현시켜야 한다.³¹⁾

주어의 생략은 선행어가 존재하는 경우 순행 생략을 하거나 범칭 주어 '我們', '人們' 등인 경우 이를 범칭 생략하고 있다. 특히 ⑥단락 속에서는 용언성빈어를

29) 술어 '是'의 문법주어는 앞 절 "現代社會人們對綠色食品有很大的關心"으로 원래는 이를 '지시' 하는 '這'가 주어로 출현해야 하나, 겹표를 이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거리도 가까워 주어를 생략하고 있다. Ariel(1990:28-29)는 접근성 정도에 근거하여 접근성이 높은 경우에는 제로 형식 즉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선행어와 지시어 사이에 거리(distance)가 가깝고 간섭항(interference)이 없으면 접근성이 높아 생략할 수 있고, 거리가 멀고 간섭항이 많을수록 접근성이 낮아 전체 명사(구)를 출현시켜야 한다.

30) 이동혁·유혜원(2009:199)에 의하면 한국어 글쓰기에서 주어 사용의 원칙도 첫째, 주어는 서술어와 적절하게 호응되어야 하고, 둘째, 구정보의 기능을 하는 주어는 앞 문맥에서 동일한 지시체와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어구가 직접 주어로 출현해야 하고, 앞 문맥에 지시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응결장치(어휘응결, 지시, 대체)를 이용하여 동일한 지시체와 적절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31) 이민우(2006:106), 潘海華·梁昊(2002:5)에 의하면 주어 선정의 6가지 제약 중 '의미호응 제약(語義匹配制約, compatibility constraint)'이 가장 우선하는 조건인데, 이는 논항의 어휘의미는 반드시 서술어가 요구하는 의미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술어가 요구하는 주어가 앞이나 뒤에 출현한 어휘와 다를 경우 반드시 주어를 출현시켜야 한다.

수반하는 동사 ‘希望’³²⁾의 목적절 속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된 주어는 ‘希望’의 주어 ‘我’일수도 있고 범칭주어 ‘人們’일수도 있다. 생략된 주어 ‘我’일 경우에는 목적절의 주어 ‘我’와 동일하기 때문에 순행 생략된 것이고, 생략된 주어 ‘人們’일 경우에는 ‘범칭 생략’된 것이다.

② 작문2

①如今，在社會“綠色食品”越來越引起人們的關注。這是隨着科學的發展以及生活水平的提高帶來的新的國際化的趨勢。“綠色食品”與饑餓，在我看來**更**重要的是不挨餓。在此，我想說明一下個人的觀點。

②首先，“不挨餓”的問題，就是解決溫飽問題，{-吃飽}是人類生存的基本條件。我們先要滿足最基本的生理需求，然後才能去面對更高層次的問題，比方說，在非洲的大部分國家，因為不能解決饑餓問題，發展不起來。對於他們來說，吃上一些“綠色食品”是根本談不上的。

③第二，使用化肥和農藥可以促進一些相關產業的發展，雖然說，爲了人民的健康∅不應該用化學農藥，但是這種意見太忽略了現在國家的經濟結構。其次∅可以想一想，消除跟化肥有關的產業造成的損失會遠遠超過從“綠色食品”中得到的收益。關鍵的是不應沒有計劃地、盲目地趕“綠色食品”潮流，而是有客觀目標地有層次地解決一些化肥和農藥的問題。

④綜上所述，我認爲[“綠色食品”和不挨餓中不挨餓是首位的]。我們能夠利用政府的客觀的政策和化肥生產企業的技術完全完善解決污染問題。

<작문2>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綠色食品”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這	지시지시	앞 절 ‘在社會“綠色食品”越來越引起人們的關注’ 지시
	更重要的		술어 ‘是’의 문법주어
	我		술어 ‘想說明’의 문법주어
②	“不挨餓”的問題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吃飽}	유의어	-앞 절 주어 ‘不挨餓’의 유의어 -술어 ‘是’의 문법주어
	我們	상위어	-①단락 속 주어 ‘我’의 상위어 -술어 ‘滿足’의 문법주어
	在非洲的大部分國家		인과 접속(因爲) 속 주어
	吃上一些“綠色食品”		술어 ‘是’의 문법주어
③	使用化肥和農藥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	(범칭)생략 ³³⁾	-我們 -술어 ‘不應該使用’의 문법주어
	這種意見	지시지시	앞 절 ‘爲了人民的健康不應該用化學農藥’ 지시

32) 劉月華 等(2001:156) 참조.

	∅	(범칭)생략	-我們 -술어 '可以想一想'의 문법주어
	消除跟化肥有關的產業造成的損失		술어 '遠遠超過'의 문법주어
	關鍵的		침가 접속(是...而是...) 속 문법주어
④	我	동형반복	-①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不挨餓	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不挨餓'의 동형 -'認為' 목적절 속 술어 '是'의 문법주어
	我們	상위어	앞 문장 주어 '我'의 상위어

〈작문2〉에서도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는 대부분 새로운 어구가 담당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락④에서는 선행어 '我'를 동형반복하고 있다. 〈작문2〉에서는 어휘응결 중 동형반복, 유의어, 상위어가 가끔 사용되고 있으나,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문장의 술어에 호응하는 새로운 문법주어가 대부분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②단락 속 누락된 {-吃飽}는 선행어 “不挨餓”의問題”와 의미는 비슷하나 의미상 뒷 절 서술어 '是人類生存的基本條件'에 더 부합하는 유의어 '吃飽'가 적합하므로 이를 주어로 출현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 응시생은 이를 누락하여 비문을 생성했다. 〈작문2〉에서 주어의 생략은 모두 범칭 주어 '我們'이 '범칭 생략' 된 것이다.

(2) “我看流行歌曲” 작문 텍스트

③ 작문3

我看流行歌曲

①流行歌曲總是有着非常多的聽眾。流行歌曲是我們現代青少年的生活中不可缺少的部分。
 ②我非常喜歡聽流行歌曲。它不像古代音樂，贊美山清水秀，而是用激躍的歌調，通俗易懂的歌詞來吸引我，我比較愛聽西方的流行歌曲尤其是後街男孩和布蘭妮的歌曲。他們用歡快的歌調來解除我在學習上所得到的壓抑感和煩惱，至少讓我在聽流行歌曲時是輕鬆，愉快的。他們的歌詞也很符合我們的生活，∅1都是熱愛生活、人生為主題編寫的歌詞，∅2聽了他們的歌詞，{-我}不禁贊

33) 첫 번째 ∅의 술어 '不應該用'과 두 번째 ∅의 술어 '可以想一想'의 주어는 범칭의 '我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범칭생략'에 의거하여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행위자가 주어로 쓰인 경우 이를 생략한 것이다.

嘆道：“**我**也有同感。**這首詞**太經典了！”**他們的歌曲**都是用經典的歌詞和快節奏組成，**我們**聽了情不自禁地搖動身體、哼歌，**這1**不就說明（**流行音樂**和我們成爲一體，融入一種歡快，沒有煩惱的音樂世界中了）嗎？**這2**可以讓我們忘記一切憂慮和不樂，且有時讓我們激動有時讓我們陶醉。**流行音樂**太秒了，**這3**也是流行音樂所特有的魅力吧！因此**人們**包括我在內都喜歡流行歌曲。

③**流行歌曲**是沒有年齡限制，無處不在，無時不有的一種精神興奮劑。走到街上、商店、超市、在學校**Ø1**都播放流行歌曲。無論是**男**還是**女**，無論是**老的**還是**年輕的**，**Ø2**都聽到、享受流行歌曲，**Ø2**大部分都會唱。**流行歌曲**已經成爲人們生活中的一部分了。

④**流行歌曲**在我們身邊，無處不在，這麼有魅力，**人們**能不喜歡聽嗎？

<작문3>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流行歌曲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流行歌曲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流行歌曲' 동형
②	我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它	인칭지시	앞 문장의 목적어 '流行歌曲' 지시
	我	동형반복	앞 문장의 목적어 '我' 동형
	他們	인칭지시	앞 문장 목적어의 관형어 '後街男孩和布蘭妮' 지시
	他們的歌詞	부분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他們用歡快的歌詞' 부분동형
	Ø1	(순행)생략 ³⁴⁾	앞 절 주어 '他們的歌詞와 동일
	Ø2	(역행)생략	뒷 절 주어 '我和 동일
	{-我}	동형반복	-앞 절 주어 '我和 동형 -술어 '不禁贊嘆道'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절 주어 '我和 동형 -직접인용문 속 술어 '有同感'의 문법주어
	這首詞	지시지시	-②단락 속 주어 '他們的歌詞' 지시 -직접인용문 속 술어 '太經典了'의 문법주어
	他們的歌曲	부분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他們的歌詞와 부분동형 -술어 '都是'의 문법주어
	我們	상위어	-앞 절 주어 '我'의 상위어 -술어 '聽了情不自禁地搖動身體'의 문법주어
	這1	지시지시	앞 절 '我們聽了情不自禁地搖動身體、哼歌' 지시
	流行音樂	유의어	-①단락 속 주어 '流行歌曲'의 유의어 -'說明'의 목적절 속 술어 '成爲一體'의 문법주어
	這2	지시지시	앞 절 '流行音樂和我們成爲一體，融入一種歡快，沒有煩惱的音樂世界中了' 지시
	流行音樂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流行音樂'의 동형 -술어 '太秒了'의 문법주어
這3	지시지시	앞 절 '流行音樂太秒了' 지시	
人們	유의어	-②단락 속 주어 '我們'의 유의어 -인과 접속(因此) 속 술어 '包括'의 문법주어	
③	流行歌曲	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流行歌曲'와 동형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Ø1	(범칭)생략	-무주어문 -술어 '都播放'의 주어
	Ø2	(순행)생략	-앞 절 목적어 '男, 女, 老的, 年輕的'와 동일

			-전환 접속(無論…都…) 속 술어 ‘都聽到、享受、都會唱’의 문법 주어
	流行歌曲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流行歌曲’의 동형 술어 ‘已經成爲’의 문법주어
④	流行歌曲	동형반복	-앞 단락 속 주어 ‘流行歌曲’의 동형 술어 ‘已經成爲’의 문법주어
	人們	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人們’의 동형 술어 ‘能不喜歡’의 문법주어

〈작문3〉 4개의 단락 중 앞 2개 단락의 첫 문장의 주어는 모두 새로운 어구이고, 뒷 2개 단락의 첫 문장의 주어는 선행어 ‘流行歌曲’를 동형반복하고 있다. 〈작문3〉 속 주어는 동형반복, 부분동형반복, 유의어, 상위어 등의 어휘응결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또한 인칭지시나 지시지시 등 ‘지시’ 응결장치도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주어의 생략은 ‘순행 생략’, ‘역행 생략’, ‘범칭 생략’ 등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주어 생략하여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즉 ②단락 속 {-我}의 누락이다. ①은 앞 절 주어 ‘他們的歌詞’와 동일하므로 순행 생략했으나, ②의 술어 ‘聽了’와 그 뒷절 술어 ‘不禁贊嘆道’의 주어는 ‘他們的歌詞’가 아니라 ‘我’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我’를 ②나 {-我} 위치에 주어로 출현시켜야 하나, 한국인 응시생은 이를 누락하여 오류가 발생했다. 본문의 표기와 같이 뒷 절의 술어 ‘不禁贊嘆道’ 앞에 주어 ‘我’를 출현시킬 경우 그 앞 절에서 생략된 ‘②’는 ‘역행 생략된 것이다. ③단락 속 ‘①’이 포함된 문장은 일종의 무주어문으로,³⁵⁾ 생략된 주어는 ‘범칭 생략된 것이다. ③단락 속 생략된 ‘②’는 접속사 ‘無論’이 쓰인 절의 목적어인 ‘男, 女, 老的, 年輕的’이다. 접속사가 쓰인 복문 ‘無論……都……’ 격식에서 뒷 절에서 생략된 주어는 앞 절의 목적어와 동일한데, 이처럼 뒷 절의 주어와 앞 절의 목적어 사이에 거리가 가깝고 중간에 간섭항이 없으므로 뒷 절에서 주어가 ‘순행 생략’ 될 수 있다.

34) 술어 ‘都是’의 생략된 문법주어 ‘①’은 이미 앞 절에서 주어로 출현한 ‘他們的歌詞’이다. 앞뒤로 직접 연결된 두 절의 주어가 동일할 경우 둘 중 하나는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이미 출현한 것을 뒤에서 생략하고 있으므로 ‘순행 생략’에 해당한다.

35) 이민우(2006:111)에 의하면 무주어문은 의무적으로 주어의 생략이 일어난다.

④ 작문4

我看流行歌曲

①身為一名青少年，**我**當然很喜歡**流行歌曲**了。因為**它**既可以給我帶來樂趣，而且**∅**可以給我帶來無限的勇氣。但**我喜歡流行音樂的一個條件**是不要對它沉迷到無可救藥的地步。

②**我們全家人**都很喜歡音樂，在我出生的第二年，**我爸**在邊彈吉他邊唱歌，**我**就坐在他的旁邊哼唱着，**{-這}**使全家人都很驚訝。**這件事**是前幾年媽媽告訴我的。**{-我}**從小就喜歡聽**流行音樂**，唱**流行音樂**。**我**一直認為**{它}**是把無限幸福帶來的，當心情不好的時候，**∅**大聲聽或唱歌把心裏的煩事全部發泄出來了，**放棄郁闷的心情**逐漸轉變成積極向上、幸福的心情。

③**現在的流行音樂**不僅有此效用，還會讓我們得到許多知識。**有些歌詞**不僅是談愛情，還有關於父母與子女間的親情和朋友之間的友情，往往還會有批判現實社會的話題來使青少年們覺醒，並且**{-我們}**從自己喜歡的歌手身上學到許多精神，比如說堅韌不拔、求知心、從困難中戰勝自我、達到最高峰的精神是值得敬佩的。

④但如果**∅**過分地沉迷於歌手和流行歌曲，導致忘記自己是學生的身份，**∅**不學習、不懂得打扮、整天追趕着明星，讓家長很擔心，使大人們對流行音樂產生蔑視的話，**我**認為**{這些人}**是錯誤地吸收了音樂的真正魅力。

⑤因此，**我對流行音樂的看法**是可以喜歡，但不要達到**沉迷的程度**。**這樣**才能保住流行音樂在社會上的地位不會被淘汰。

<작문4>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我		새 단락 첫문장의 주어
	它	인칭지시	-앞 절의 목적어 '流行歌曲' 지시 -인과 접속(因為) 속 술어 '帶來'의 문법주어
	∅	(순행)생략	-앞 절 주어 '它'와 동일 -첨가 접속(而且) 속 술어 '帶來'의 문법주어
	我喜歡流行音樂的一個條件		전환 접속(但) 속 술어 '是'의 문법주어
②	我們全家人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我爸	하위어	앞 절 주어 '我們全家人'의 하위어
	我	하위어	앞 절 주어 '我們全家人'의 하위어
	{-這}	지시지시	앞 절 '在我出生的第二年，我爸在邊彈吉他邊唱歌，我就坐在他的旁邊哼唱着唱' 지시
	這件事	지시지시	앞 절 '在我出生的第二年，我爸在邊彈吉他邊唱歌，我就坐在他的旁邊哼唱着唱' 지시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我'의 동형
	它	인칭지시	앞 문장 속 목적어 '流行音樂' 지시
③	∅	(순행)생략 ³⁶⁾	앞앞 절 주어 '我和 동일
	放棄郁闷的心情		술어 '逐漸變成'의 문법주어
③	現在的流行音樂	부분동형반복	②단락 속 목적어 '流行音樂'의 부분동형

	有些歌詞 {-我們}	지시지시 상위어	앞 문장 속 주어 '現在的流行音樂' 지시 ②단락 속 주어 '我的 상위어
④	∅	(범칭)생략 ³⁷⁾	범칭주어
	我	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我的 동형
	這些人	지시지시 ³⁸⁾	범칭주어 ∅ 지시
⑤	我對流行音樂的看法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술어 '是'의 문법주어
	這樣	절 대체	앞 절 '可以喜歡, 但不要達到痴迷的程度' 대체

〈작문4〉는 5개 단락 중 3개 단락의 첫 문장 주어는 모두 새로운 어구가 담당하고, 1개는 선행어의 부분동형이 주어로 쓰였으며, 나머지 1개는 범칭 주어가 생략되었다. 이외 기타 위치의 주어 출현은 동형반복, 부분동형반복, 상하위어 등의 어휘응결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곳은 주어를 출현시켜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즉 ②단락 속 {-我}는 술어 “從小就喜歡聽流行音樂, 唱流行音樂。”의 문법주어가 누락된 것이다. 여기에서 술어 '聽, 唱'의 문법주어는 선행어 '我'와 동일하므로 이를 동형반복하여 주어로 출현시켜야 정문이 된다. 또한 ③단락 속 {-我們}은 첨가 접속사 '并且'가 쓰인 문장 속 술어 '學到'의 문법주어인데, 이는 그 앞 절들의 주어 '有些歌詞'와 다르므로 '我們'을 주어로 출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하여 오류문이 되었다.

〈작문4〉 속 주어의 출현에는 어휘응결 이외에 인칭지시와 지시지시의 응결장치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 지시를 이용하여 주어를 출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오류가 생긴 곳이 있으니 바로 ②단락 속 {-這}이다. 이 문장에서 술어 '使全家人都很驚訝'의 문법주어는 그 앞에 출현한 두 개의 절이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므로 이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 '這'를 주어로 출현시켜야 정문이 된다.

〈작문4〉 속 주어 출현은 어휘응결, 지시 이외에 대체도 사용되었다. 〈작문4〉에서 주어 생략은 '순행 생략, 범칭 생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36) 생략된 주어 ∅는 앞 절에서 주어로 출현한 '我'이다. '我'와 ∅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중간에 '它'와 같은 간섭항이 있으나 모두 겹표로 연결되어 있고 술어 '聽, 唱'의 문법주어와 맨 앞의 술어 '一直認為'의 행위자가 동일하므로 뒤 절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있다.

37) 술어 '過分地痴迷於'와 '不學習'의 문법주어는 임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범칭 생략' 되었다.

38) '認為'의 목적절에서 주어로 쓰인 '這些人'은 앞 절에서 범칭 생략된 임의의 사람들을 가리키므로 지시대명사를 이용하여 '지시지시(指示指稱)'하고 있다.

(3) “吸煙對個人健康和公眾利益的影響” 작문 텍스트

⑤ 작문5

吸煙對個人健康和公眾利益的影響

①最近, **全世界**流行“健康生活”的風尚。其中, “**禁煙**”也是一種維持健康生活的好方法。其實, **吸不吸煙**是個人的選擇和自由。但是, 連**小孩子**都知道[吸煙對人體健康有害]。那麼, **吸煙的有害性**到底在甚麼地方呢? 據韓國有關部門的統計介紹, **戒過煙的百分之八十以上的人們**因無法完全戒煙而重新開始吸煙。這樣的事實表明[吸煙的**中毒性**多麼可怕]。因此, **我**認為[爲了大家的健康, **{-政府}**不得不採用強迫的方法施行禁煙的措施]。

②**中國政府**對這一禁煙方面的政策和韓國的其基本目的是相同的。但是, **我**希望[兩國政府採取更有效、更讓人容易接受的方法來實行這些措施]。

③總而言之, **吸煙**是對人們有害無利的壞習慣。**我們**要共同努力推廣禁煙的好政策。

<작문5>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全世界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禁煙”		술어 ‘也是’의 문법주어
	吸不吸煙	유의어	앞 문장 속 주어 ‘禁煙’의 유의어
	小孩子		술어 ‘都知道’의 문법주어
	吸煙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吸煙’의 동형
	吸煙的有害性	부분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吸煙’의 부분동형
	戒過煙的百分之八十以上的人們		인과 접속(因…而…) 속 술어의 문법주어
	這樣的事實	절 대체	앞절 ‘戒過煙的百分之八十以上的人們因無法完全戒煙而重新開始吸煙’ 대체
	吸煙的中毒性	유의어	앞 문장 속 주어 ‘吸煙的有害性’의 유의어
	我		술어 ‘認為’의 문법주어
{-政府}		인과 접속(爲了…) 속 술어 ‘不得不採用’의 문법주어	
②	中國政府對這一禁煙方面的政策和韓國的其基本目的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술어 ‘是相同的’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①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兩國政府	부분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中國政府和韓國政府’의 부분동형
③	吸煙	동형반복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시간 접속(總而言之) 속 술어 ‘是’의 문법주어 -①단락 속 주어 ‘吸煙’의 동형
	我們	유의어	앞 문장 속 관형어 ‘人們’의 유의어

<작문5>에서 새 단락의 첫 문장이나 술어의 문법주어가 서로 다를 경우 새로운

어구가 주어로 출현한다. <작문5> 속 주어의 출현은 동형반복, 부분동형반복, 유의어 등의 어휘응결이 주로 사용되고 절 대체는 1회 사용되었다. 절 대체는 ①단락 속 ‘這樣的事實’로 바로 앞절의 내용을 대체하고 있다. <작문5>의 주어는 각 술어의 문법주어가 선행어와 서로 달라 새로운 어구가 주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①단락 속 {-政府}는 동사 ‘認爲’의 목적절 속 서술어 ‘不得不採用…施行…’의 문법주어로, 이는 ‘認爲’의 주어 ‘我’와 다르므로 반드시 출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응시생은 이를 누락하여 오류가 생겼다.

<작문5>에서 주어의 생략은 나타나지 않았다.

⑥ 작문6

吸煙對個人健康和公衆利益的影響

①在現代社會上, “自己的健康自己負責”的觀念傳播得越來越廣, 形成許多人戒煙的良好結果。但是我觀察我的周圍, 還是發現[無數的人用吸煙的方式虐待自己, 甚至影響其他人]。

②吸煙的影響很多, 其中最嚴重且最直接的影響是對吸煙者自己的影響。我曾經在電視上看過兩張吸煙者和非吸煙者體內器官的對比照片, 这让我感到驚訝。吸煙者的照片全是黑黑的, 一看就是病情嚴重。長期的吸煙者, [+我們]從外貌上也看得出他的病態: 牙齒變黑, 聲音嘶啞, 臉色發黃等。

③第二, 吸煙對吸煙者附近的人也有巨大的影響。“間接吸煙”對小孩、老人、孕婦和胎兒的健康都產生嚴重的破壞。吸煙者們, 你1自己死了自己吃虧, 但你1有甚麼權力還去破壞他人的健康呢? 自覺吧!

④最後, 青少年的抽煙現象也逐漸成了重大問題。他們看到[大人吸煙], 會覺得[那樣很“酷”], 或者出於好奇心, 學着大人抽煙。這樣, 吸煙不但影響着青少年的身體健康, 也影響着他們的精神健康。

⑤我認爲, [抽煙是一種百害無益的很惡心的習慣]。吸煙者們應盡快地停止吸煙, 以免傷害自己, 破壞家庭。

<작문6>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自己的健康自己負責”的觀念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我		전환 접속(但是) 속 술어 ‘觀察’의 문법주어
	無數的人		‘發現’의 목적절 속 술어 ‘用吸煙的方式虐待自己’의 문법주어
②	吸煙的影響	부분동형반복	①단락 속 관형어 ‘吸煙的方式’의 부분동형

	最嚴重且最直接的影響	부분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吸煙的影響'의 부분동형
	我	동형반복	①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	(순행)생략	앞절 목적어 '兩張吸煙者和非吸煙者體內器官的對比照片'과 동일
	吸煙者的照片	부분동형반복	앞 문장 속 목적어 '吸煙者和非吸煙者體內器官的對比照片'의 부분동형
	長期的吸煙者	부분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吸煙者的照片'의 부분동형
	{+我們}	상위어	②단락 속 주어 '我'의 상위어
	牙齒		술어 '變黑'의 문법주어
	聲音		술어 '唧啞'의 문법주어
	臉色		술어 '發黃'의 문법주어
③	吸煙	부분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吸煙的影響'의 부분동형
	"間接吸煙"	부분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吸煙'의 부분동형
	吸煙者們	부분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長期的吸煙者'의 부분동형
	你1	인칭지시	앞 단락 속 주어 '吸煙者們' 지시
④	青少年的抽煙現象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술어 '逐漸成了'의 문법주어
	他們	인칭지시	앞 문장 주어 '青少年' 지시
	那樣	동사 대체	앞절 술어 '吸煙' 대체
	吸煙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술어 '吸煙'의 동형
⑤	我	동형반복	①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抽煙	유의어	④단락 속 주어 '吸煙'의 유의어
	吸煙者們	동형반복	③단락 속 주어 '吸煙者們'의 동형

〈작문6〉 속 주어는 각 술어에 호응하는 문법주어가 서로 달라 새로운 어구가 주어로 출현한 경우가 많다. 이외에 동형반복, 부분동형반복, 유의어, 상위어 등의 어휘응결 및 인칭지시, 동사 대체의 응결장치도 주어 출현에 사용되었다. 주어의 출현과 관련하여 ②단락 속 “長期的吸煙者, {+我們}從外貌上也看得出他的病態。”에서 {+我們}은 첨가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첨가하여 비문이 된 것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長期的吸煙者’로 술어 ‘看得出’의 대상이 앞에 이미 주어로 출현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인 응시생은 행위자 ‘我們’을 다시 주어로 첨가시켜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작문6〉에서 주어의 생략은 순행생략이 1회 나타난다.

2) 서신문 속 주어 출몰

(1) “一封求職信” 작문 텍스트

⑦ 작문7

快樂家庭旅游公司:

①本人姓名xxx, 性別:女, 年齡:二十三歲。

②我應聘貴公司的導游一職。雖Ø1沒有經驗, 可Ø1有信心做好。表達能力雖不突出, 可也有一定的能力。對於接受的工作Ø1一定會盡全力做好。{-我}本身也很熱愛導游工作。

③{-我}於一九八五年小學畢業, 一九八八年中學畢業。一九九零年高中畢業, 一九九四年獲得了中等漢語水平證書, 擅長漢語, 能够做一名很出色的漢語翻譯。Ø1相信[做導游也不會有任何的差錯的]。Ø1現考了高等漢語水平測試, Ø1相信[在不久的將來, Ø1也會取得水平證書的]。因此Ø1望[貴公司能够給我一個機會, 讓我的才華能够施展]。對於中國的地理、歷史及風情我都有了一些了解, 也很愛中國歷史悠久的文化及廣闊的風景名勝。Ø1也曾經去游歷過一次, 因此如貴公司能够聘我做中國方面的導游, Ø1相信[我會做的很好, 也能够很勝任的]。例如, 中國的萬里長城, 中國人爲之驕傲, 還有紫禁城表現出了中國皇朝的權力中心, 以及景色優美, 高高聳立的黃山。這些都是旅游的好去處, 也是游人夢寐以求的去處。做爲家庭, 女人的旅游是在好不過的了。根據以上這些Ø1不知[貴公司能否認可我的能力, 以及選用我做爲貴公司的導游]呢?

④最後, Ø1望[貴公司事業發達]。

求職人:xxx
一九九四年十月十五日

<작문7>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本人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②	我	인칭지시	①단락 속 주어 '本人' 지시
	Ø1	(순행)생략 (작자)생략	-앞 문장 속 주어 '我'와 동일 -작자 본인
	表達能力		전환 접속(雖...可...) 속 술어 '不突出'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我'의 동형
③	{-我}	동형반복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②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Ø1	(작자)생략	-작자 본인 -술어 '相信'의 문법주어
	做導游		술어 '也不會有'의 문법주어
	Ø1	(작자)생략	-작자 본인 -술어 '現考了', '相信', '也會取得'의 문법주어
	Ø1	(작자)생략	-작자 본인 -인과 접속(因此) 속 술어 '望'의 문법주어

	貴公司		'望'의 목적절 속 술어 '能夠給我'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我' -술어 '都有'의 문법주어
	∅1	(작자)생략	-작자 본인 -술어 '也曾經去游歷'의 문법주어
	貴公司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貴公司'의 동형 -술어 '能够聘'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我的' 동형
	中國人		술어 '爲之驕傲'의 문법주어
	紫禁城		술어 '表現出了'의 문법주어
	這些	지시지시	선행어 '萬里長城, 紫禁城, 黃山' 지시
	女人的旅游		술어 '是'의 문법주어
	∅1	(작자)생략	-작자 본인 -술어 '不知'의 문법주어
	貴公司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貴公司'의 동형 -'不知'의 목적절 속 술어 '能否認可'의 문법주어
④	∅1	(작자)생략	-작자 본인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술어 '望'의 문법주어
	貴公司	동형반복	-③단락 속 주어 '貴公司'의 동형 -'望'의 목적절 속 술어 '事業發達'의 문법주어

〈작문7〉은 구직서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자신의 능력을 피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주로 작자 자신을 나타내는 '我'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貴公司'가 주어로 나타나고 있다. 주어 '我'는 모두 동형반복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어떤 문장에서는 '작자 생략'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②③④단락 속 ∅1이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글에서는 '나라는 주어는 생략되는 것이 좋다.'³⁹⁾ 그러나 앞뒤 술어의 문법주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1인칭 작자 '我'를 주어로 출현시키기도 해야 하는데 한국인 응시생은 종종 이를 누락하여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②단락에서 마침표로 종결된 문장은 총 5개이며, '表達能力'가 주어로 쓰인 세 번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에서 주어는 모두 '我'이다. 첫 번째 문장은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이므로 '我'가 출현했다.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앞 문장 주어 '我'와 동일하므로 순행 생략되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장의 주어도 '我'인데, 두 문장 중 한 곳에는 주어를 출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중간에 세 번째 문장의 주어

39) 자기소개서에서는 '나라는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 좋다는 점은 글의 목적이나 텍스트 장르에 따라 주어 사용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인의 모국어 자기소개서에는 '나라는 주어'가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출현하는 것이 심각하다.(이동혁·유혜원 (2009:198) 참조.)

(表達能力)와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의 주어(我)가 서로 다르고, 다섯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거리가 멀고 중간에 주어 '表達能力'가 간섭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장의 주어 '我'를 생략하면 독자와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 응시생은 두 곳 모두 주어를 생략하여 오류가 발생했다. 만약 위 텍스트에 표시한 바와 같이 다섯 번째 문장에서 주어 '我'를 출현시킨다면 네 번째 문장의 주어는 역행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어 누락 오류 중 ③단락 속 {-我}는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이므로 '작자 생략' 시키지 않고 출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⑧ 작문8

快樂家庭旅游公司負責人:

①您好!

②我叫xxx, 剛剛畢業於漢城大學外交係。因Ø1自小跟隨父母幾度移居異國他鄉, 使得我有機會接觸了更多的語言、風俗和文化, 為今日的外語水平打下了良好的基礎, 更養成了一種活潑開朗的性格。我可以講一口流利的英語和漢語, 母語韓國語當然更是毫不遜色。讀大學期間Ø1曾多次接待外國客人, 擔任導游工作。當時的經歷給我留下了很深的印象。我願做一名職業導游, 發揮我的特長, 特別希望[Ø1]能在中國當一名導游, 把中國的大好河山一展現給世界每一個地區、每一個角落的觀光客人)。

③因為我熱愛中國文化, 更陶醉於中國的悠久歷史之中, 如果能夠有機會將如此偉大的歷史和秀麗的山河介紹給地球村的成員, 我將感到無限榮幸。Ø1相信以我的熱情和能力, 我會勝任這份工作。

④至於容貌, Ø1希望[Ø1]會有機會當面詳談。

⑤謝謝。

⑥我的聯係地址是:xxxxxxx

xxx敬上
1994年10月15日

<작문8>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您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②	我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Ø1	(순행)생략	앞 문장 주어 '我'와 동일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母語韓國語		술어 '當然更是毫不遜色'의 문법주어

	∅1	(순행)생략	앞 문장 주어 '我'와 동일
	當時的經歷		술어 '給我留下了'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와 동일
	∅1	(순행)생략	앞 절 주어 '我'와 동일
③	我	동형반복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②단락 속 주어 '我'와 동일
	我	동형반복	인과 접속(如果) 속 술어 '將感到無限榮幸'의 문법주어
	∅1	(역행)생략	뒷 절 주어 '我'와 동일
	我	동형반복	앞 문장의 주어 '我'와 동일
④	∅1	(작자)생략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작자 '我' -술어 '希望, 목적절 술어 '會有'의 문법주어
⑥	我的關係地址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작문8〉 역시 구직서로, 1인칭대명사 작자 주어 '我'가 동형반복 되어 출현하거나 혹은 연이은 앞뒤 문장에 이미 출현한 경우에는 순행 생략이나 역행 생략되고 있다. 술어의 문법주어가 주어 '我'와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어구가 주어로 출현하고 있다.

(2) “一封寫給父母的信” 작문 텍스트

⑨ 작문9

尊敬的爸爸、媽媽：

①爸爸、媽媽，我是你們的大女兒。離開你們才一個星期，我又想念你們了。∅1不知(你們是怎麼過5月8日—父母節的)。我在學校宿舍裏，也不能回家，感到遺憾。不過我還是為你們準備了一個小禮物，等下個周末你們就會知道！

②我現在在考場上，∅2是寫作文的時間，正巧作文題目是“一封寫給父母的信”。一看到這題目，我就更想你們了。其實我一直對不起你們，特別是上個周末時發生的那一件事……。

③那一天是星期天，我一早就回了家，和爸媽一起吃早飯，又一起去做禮拜。從教堂回來時，已經是五點多了。我是在七點鐘之前回宿舍的，要是坐公共汽車回去就會晚。但我深信[爸爸把教堂的老人們送回家後，也一定會把我送回宿舍]。但爸爸回到家，見到我說的第一句話就是：“xx，爸昨晚很忙只睡了一個小時，看來不能送你回去，這次∅3能不能自己回去？”頓時，我的眼淚就涌上來了。“現在都晚了，你不能送我，那不早說！我不應該相信[你會送我]……”爸爸聽了，臉色一變，就穿上外衣，要送我。看他那樣子，我又覺得[爸爸會多麼地累，多麼地辛苦]。我忍受不了。爸爸不顧疲倦送我回去，但時間也不够。沒辦法，我只能自己回去了。爸爸已經開車在門口等我了。一看我出來，∅4就動手勢讓我上。但我沒聽他的話，走過爸爸的車，上了公共汽車。

④那一天，我幸虧在半路上打了出租車才準時到了宿舍，但那一晚上我哭了一夜。∅1覺得[我

做的那一切，肯定會傷爸爸的心。我到現在還一直覺得對不起你們，沒做出大女兒的樣兒。
 ⑤現在我有勇氣跟你們說：“爸爸，媽媽！【+我】對不起！還有，我永遠都愛你們！”
 ⑥此致敬禮

你們的女兒
2001. 5. 12

<작문9>에서 밑줄 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我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離開你們		술어 ‘才一個星期’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1	(작자)생략	작자 ‘我’
	你們	인칭지시	-앞 문장의 호칭어 ‘爸爸、媽媽’ 지시 -‘不知’의 목적절 속 술어 ‘是’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의 주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전환 접속(不過) 속 술어 ‘準備了’의 문법주어
②	你們	인칭지시	첫 문장 속 호칭어 ‘爸爸、媽媽’ 지시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2	(순행)생략	앞 문장 속 부사어 ‘現在’와 동일
	作文題目		술어 ‘是’의 문법주어
③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전환 접속(但) 속 술어 ‘深信’의 문법주어
	爸爸	동형반복	-①단락 속 호칭어 ‘爸爸’의 동형 -‘深信’의 목적절 속 술어 ‘把教堂的老人們送回家’의 문법주어
	爸爸	동형반복	-앞 문장 속 주어 ‘爸爸’의 동형 -전환 접속(但) 속 술어 ‘回到家’의 문법주어
	見到我說的第一句		술어 ‘就是’의 문법주어
	爸	동의어	앞 문장 주어 ‘爸爸’의 동의어
	∅3	(대화)생략 ⁴⁰⁾	직접인용문 속 의문문의 주어 ‘你’
	我的眼淚		술어 ‘就涌上來了’의 문법주어
	現在		술어 ‘都晚了’의 문법주어
	你	인칭지시	앞 문장 주어 ‘爸爸’ 지시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你	인칭지시	앞 문장 주어 ‘爸爸’ 지시
	爸爸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爸爸’의 동형
	臉色		술어 ‘一變 就穿上’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첨가 접속(又) 속 술어 ‘覺得’의 문법주어

	爸爸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爸爸'의 동형 - '覺得'의 목적절 속 술어 '會多麼地累'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술어 '忍受不了'의 문법주어
	爸爸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爸爸'의 동형 -술어 '不顧疲憊送我回去'의 문법주어
	時間		전환 접속(但) 속 술어 '也不够'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술어 '只能自己回去'의 문법주어
	爸爸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爸爸'의 동형 -술어 '已經開車在門口等'의 문법주어
	∅4	(순행)생략 ⁴¹⁾	앞 문장 주어 '爸爸'와 동일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전환 접속(但) 속 술어 '沒聽'의 문법주어
④	我	동형반복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전환 접속(但) 속 술어 '哭了'의 문법주어
	∅1	(작자)생략	-작자 '我' -술어 '覺得'의 문법주어
	我做的那一切	지시지시	-앞 단락 ③ 전체 지시 - '覺得'의 목적절 속 술어 '肯定會傷'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⑤	我	동형반복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술어 '永遠都愛'의 문법주어

<작문9>는 일반 서신문으로, 작자 주어 '我'는 대체로 동형반복 출현하거나 '작자 생략' 되어 있다. ①④단락 속 ∅1은 모두 작자를 가리키는 '我'가 주어로 출현할 수 있는 곳이지만 '작자 생략' 된 것이다.

주어 생략과 관련하여 ②단락 속 ∅2는 앞 절에서 부사어로 쓰인 시간사 '現在'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어가 바로 앞 절에 출현하여 거리가 가깝고 중간에 간섭항이 없어 순행 생략 되었다. ③단락 속 ∅3는 의문문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대화문에서 의문문의 주어 '你'는 생략되더라도 혼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대화 생략' 되었다. 마찬가지로 ⑤단락 속 "爸爸、媽媽! {+我}對不起!"도 대화문

40) 의문문에서 주어 '你'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대화문을 직접 인용한 부분으로, 이는 '대화 생략'에 해당한다.

41) 이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 ∅4는 바로 앞 문장의 주어 '爸爸'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

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대화문에서는 화자 '我'를 생략하더라도 혼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대화 생략'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응시생은 이를 첨가하여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⑩ 작문10

一封寫給母親的信

親愛的父母：

①**身體**健康嗎？

②**我**好久沒有給你們寫信了。但是**我**時時刻刻感覺到**你們**在我身邊。因為**你們對我的愛**永遠印在我心深處。

③**我**還記得**我**小時候，偷偷拿了衣櫃上面的餅乾，那時還小不懂事，不知道**那**是給人家祝賀結婚的禮物。那時**家裏的經濟**不怎麼好，**母親**爲了買那個套裝禮盒不知花費了多少心血！但**您**沒有怪我，而是怪您自己沒能使我吃好穿好。

④還有，有一次**我**發高燒時，因**家**離鎮甚遠且沒有汽車，**父親**背我好幾裏送我到診所，**我**只記得**到診所時您全身是汗**……

⑤**這些事**足以證明**你們**是多麼愛我。但是，**我**平時不孝，因一些雞毛蒜皮的事兒發脾氣。當然**我知道****你們教育我**並不是長大後賺錢給你們，付出養育我的代價，而是做個好人，孝順父母。**孔子**也說過“孝乃第一美德”。在我成長的過程中**我**不知**你們**多少次打我、指責我，**我**并不生氣，**我**已經深深地理解到**那**都是爲我好。

⑥**父母的養育之恩**終生難報，可是**我**可以全心全力，以孝忠報答你們。**社會、世界**會改變，但**父母對我的愛**會保存到永遠，直到萬代。

⑦祝父母身體健康，萬事如意。

兒子：xxx
2001年5月12日

<작문10>에서 주어의 출몰과 관련하여 사용된 응결장치는 다음과 같다.

단락	주어	응결장치	피대체어 및 출몰 배경
①	身體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②	我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전환 접속(但是) 속 술어 '感覺到'의 문법주어
	你們	인칭지시	-선행 호칭어 '父母' 지시 -'感覺到'의 목적절 속 술어 '在'의 문법주어
	你們對我的愛		인과 접속(因爲) 속 술어 '永遠印在'의 문법주어
③	我	동형반복	-② 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我	동형반복	-앞 주어 '我'의 동형 -記得의 목적절 속 술어 '偷偷拿了'의 문법주어
	那	지시지시	-앞절 '我小時候, 偷偷拿了衣櫃上面的餅乾' 지시 -不知道의 목적절 술 술어 '是'의 문법주어
	家裏的經濟		술어 '不怎麼好'의 문법주어
	母親	하위어	호칭어 '親愛的父母'의 하위어
	您	인칭지시	-앞 문장 주어 '母親' 지시 -전환 접속(但) 속 술어 '沒有怪'의 문법주어
④	{-我}	동형반복	-③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술어 '發高麗'의 문법주어
	家		인과 접속(因) 속 술어 '甚遠且沒有'의 문법주어
	父親	하위어	호칭어 '親愛的父母'의 하위어
	我	동형반복	앞 절 주어 '我'의 동형
	您全身	인칭지시	앞 절 주어 '父親' 지시
⑤	這些事	지시지시	-앞 단락 ③④ 내용 지시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你們	인칭지시	-호칭어 '親愛的父母' 지시 -證明의 목적절 속 술어 '是多麼愛'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④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전환 접속(但是) 속 술어 '平時不孝'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문장 주어 '我'의 동형
	你們教育我		'知道'의 목적절 속 술어 '不是...是'의 문법주어
	孔子		술어 '也說過'의 문법주어
	∅	(순행)생략 ⁴²⁾	앞 개사구 속 '我'와 동일
	{-你們}	인칭지시	-호칭어 '親愛的父母' 지시 -'不知'의 목적절 술 술어 '多少次打我, 指責我'의 문법주어
	我	동형반복	앞 절 목적어 '我'의 동형
	我	동형반복	앞 절 주어 '我'의 동형
	那	지시지시	앞앞절 '你們多少次打我, 指責我' 지시
⑥	父母的養育之恩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
	我	동형반복	-⑤단락 속 주어 '我'의 동형 -전환 접속(可是) 속 술어 '全心全意, 以孝忠報答'의 문법주어
	社會、世界		술어 '會改變'의 문법주어
	父母對我的愛	동형반복	-②단락 속 주어 '你們對我的愛'의 동형 -전환 접속(但) 속 술어 '會保存'의 문법주어

〈작문10〉도 일반 서신문인데, 〈작문9〉와 달리 대체로 작자 주어 '我'가 동형반복의 형태로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작자 생략된 경우는 없고 순행 생략된 곳이 한 군데 있다. 〈작문10〉에서 주어의 출현은 대체로 동형반복의 어휘응결이나 지시의 응결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술어의 문법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42) 이 절에서 술어 '不知'의 문법주어는 그 앞의 전치사구에 출현한 '我'이면서 뒷 절의 주어 '我'이므로, 이미 앞과 뒷 절에 언급되어 있어 이를 생략했다.

새로운 어구가 주어로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응시생은 반드시 주어를 첨가해야 할 곳에 이를 누락하여 비문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④단락 속 {-我}는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이므로 출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④단락은 총 4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我}는 첫 번째 절의 주어이고 이는 마지막 네 번째 절의 주어 '我'와 동일하여 역행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첫 번째 절과 네 번째 절 사이의 거리가 멀고 중간에 '家, 父親' 등과 같은 다른 주어가 간섭항으로 존재하므로 첫 번째 절에서 주어 '我'를 출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⑤단락 속 {-你們}은 술어 '不知'의 목적절 속 서술어 '多少次打我, 指責我'의 행위자인 '父母'를 가리키는데, 이는 '不知' 앞에 생략된 주어 '我'와 다르므로 반드시 주어로 출현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 응시생은 이를 생략하여 각 술어의 문법주어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아 오류문을 생성했다.

4. 나가는 말

본고는 고급 중국어 실력을 가진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답안지 중 의론설명문과 서신문에 해당하는 10편의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주어의 출현 및 생략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응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응결장치의 사용 양상에 대해 분석했다. 텍스트 분석의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어 작문 시 교육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의 구분에 상관없이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에서 주어 출현은 대체로 동형반복, 부분동형반복 등 어휘응결이 주로 사용되며, 때때로 지시, 대체 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텍스트의 응집성을 위해 응결장치 및 적절한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주어의 생략은 대부분 순행 생략 또는 작자 생략이고, 때때로 범칭 생략이나 대화 생략이 쓰이고 드물게 역행 생략이 사용되었다. 특히 자기소개서의 성

격을 갖는 구직서에서는 독자와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주어 '我'를 자주 생략할 수 있다. 그럼에도 '我'가 새 단락 첫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에는 출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반해,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논증하는 의론설 명문에서 주어 '我'는 대부분 동형반복으로 반드시 출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글의 목적이나 문체에 따라 주어 생략의 용인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 작문 시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글의 목적이나 문체를 파악하게 한 후 이에 따라 주어를 적절하게 첨가 혹은 생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작문에서 주어 사용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서술어와의 의미호응이다. 텍스트에서 앞뒤 절이나 문장 속 술어의 주어가 다를 경우, 서술어와 내포절 속 술어의 주어가 다를 경우, 접속으로 연결된 복문 속 술어의 주어가 서로 다를 경우 반드시 주어를 출현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종종 각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를 제대로 출현시키지 않아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법성이 저해되는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오류문 예시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앞뒤 문장 속 서술어의 주어가 동일하고 앞뒤 문맥 속에 이미 출현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거리가 멀고 중간에 다른 간섭항이 있을 경우에는 독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반드시 주어를 출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국어 작문 시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서술어와의 의미호응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피대체어와의 거리 및 간섭항의 유무에 근거하여 주어를 출현 혹은 생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參考文獻〉

- 瞿宗德, 「漢語中主語隱現句及其英譯」, 『上海海運學院學報』第2期, 1997년, 106-114쪽.
金慧婷, 『篇章語言學視角下的中韓主語省略對比研究』, 上海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년.
廖秋忠, 「現代漢語篇章中指同的表達」, 『中國語文』第2期, 1986년, 88-96쪽.
馬明艷, 『二語學習者漢語語篇構建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년.

- 潘海華·梁昊, 「優選論與漢語主語的確認」, 『中國語文』第1期, 2002년, 3-13쪽.
- 方梅, 「關於複句中分句主語省略的問題」, 『延邊大學學報』第1期, 1985년, 44-54쪽.
- 徐糾糾, 『現代漢語回指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년.
- 연동숙, 『韓國語와 中國語의 텍스트 結束 對照 研究 — 제보 기능 신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년.
- 俞敦雨, 「主語省略的幾種特殊方式」, 『邏輯與語言學習』第4期, 1987년, 43-45쪽.
- 劉月華 等,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1년.
- 이관규, 『학교 문법론』, 서울, 월인, 2005년
- 이동혁·유혜원, 「대학 글쓰기에서 주어 사용 오류의 현황 분석과 주어 사용 지도 방안」, 『한말연구』 제25호, 2009년, 191-219쪽.
- 이민우, 「현대중국어의 주어 생략에 관한 연구—주어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언어연구』 제22집, 2006년, 97-133쪽.
- 이석규, 『텍스트 분석의 실제』, 서울, 역락, 2003년.
- 張德祿·劉汝山, 『語篇連貫與銜接理論的發展及應用』,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3년.
- 정희모 외, 『대학 글쓰기 연구와 텍스트 해석』, 파주, 보고사, 2015년.
- 주희민, 「한중 연설문 텍스트의 문법적 응결 장치 대조 연구(I)」, 『한국어학』 61, 2013년, 339-367쪽.
- 陳偉英, 『漢語主語省略的認知語用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08년.
- 華宏儀, 「主語承主語省略探討」, 『烟台師範學院學報』第1期, 2001년, 83-89쪽.
- 華宏儀, 「主語承非主語省略探討」, 『烟台師範學院學報』第2期, 2002년, 88-95쪽.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박이정, [2004]2009년.
- 胡壯麟, 『語篇的銜接餘連貫』,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4년.
- 黃國文, 『語篇分析概要』, 湖南, 湖南教育出版社, 1988년.
- Ariel, M, *Accessing Noun-Phrase Antecedent*, London, Routledge, 1990년.
- Beaugrande, R. & W. Dressler,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1981년.
- 김태옥·이현호 공역, 『談話·텍스트言語學 入門』, 서울, 양영각, 1991년.
- Halliday, M.A.K. & R.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gman Group Ltd, 1976년.
- BCC語料庫, <http://bcc.blcu.edu.cn>

〈Abstract〉

A Study on Application of Cohesion and Coherence to Subject Appearing and Disappearing in Chinese Writing Text by Koreans

Yun, Yu-j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using patterns of coherence devices to secure the cohesion of texts in relation to the appearing and disappearing of subject in Chinese writing texts by Koreans have advanced Chinese level. This paper divided the coherence devices into five kinds such as 'Reference, Substitution, Ellipsis, Conjunction, Lexical Coherence'. Lexical Coherence is classified as homotype reiteration, partial homotype reiteration, synonym and generic ter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Chinese writing text, Koreans mainly use lexical coherence such as homotype reiteration, partial homotype reiteration with respect to subject appearance, and occasionally use reference and substitution.

Second, in Chinese writing text, Koreans mainly use progressive ellipsis or author ellipsis in relation to the disappearance of subject, occasionally use general ellipsis or dialogic ellipsis, and rarely use regressive ellipsis.

Third, the most prevalent principle of appearing subject in writing text is the meaning response of subject and predicate. If the subject of a predicate in a sentence is different from that of a predicate in other sentence, if the subject of the predicate is different from the subject of the nested clause, if the subject of the predicate is different from that of a predicate in a complex sentence, the subject must appear. However, Koreans often fail to make proper use of the subject corresponding to each predicate.

Fourth, even though the subject of the predicate in the front and back sentences is the same and has already appeared in the context, if there is a distance between them and there are other interference terms in the middle, communication with the reader may not be smooth, so it is preferable to make the subject appear.

272 中國文化研究 第41輯

Key words: Cohesion, Coherence Device, Subject, Appearing, Reference,
Substitution, Ellipsis, Conjunction, Lexical Coherence

이 논문은 2018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3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